

니카야서 길을 묻다 11. 팔정도(八正道) ④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 (八正道)의 두 번째는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사유’이다. 견해와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휘되는 양상 또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떤 사유를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하다고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특히 사유에 내재된 양면성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니카야)의 ‘대념처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 (正思惟)인가? 비구들이여! ‘벗어나 떠남’ (出離, 출리)에 대한 사유, ‘분노(瞋과 진에)가 없음’에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피하려고만 하는 삶의 방식을 그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쾌락을 누리고 만족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출가(出家)’의 의미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안락한 상태에서부터의 떠남에 있듯, 이익과 쾌락의 추구라는 가치로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문법에 대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를 전개하는 것이 ‘벗어나 떠남’이라는 주제어임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이것은 종교적 사유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볼 때 생기는 시선처럼,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이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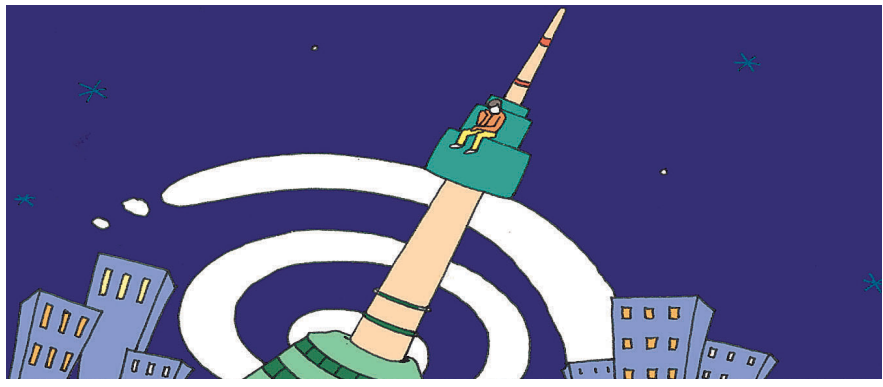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대한 사유, ‘해치지 않음’ (無害, 무해)에 대한 사유, 이를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라고 한다.”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 (正思惟)를 이루기 위해 제시된 사유의 주제는 ‘벗어나 떠남’이다. 이 말은 ‘세속에서의 삶의 방식을 떠나 해탈/열반을 추구하라’는 출가 생활의 권장에서 그 일차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티뵤따까(如是語, 여시어)> 제72에서 ‘벗어나 떠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경문에 의거하면, ‘벗어나 떠남’의 대상은 ‘집의 소유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다. ‘욕망에 의존하고 있는 세상’ (欲界, 욕계),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의존하고 있는 삶의 방식’ (色界, 색계),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 (無色界, 무색계) 이 세 가지로부터 벗어나 떠남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벗어나 떠남’에 대한 사유의 담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벗어나 떠나야 할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일까?’에 대해 늘 스스로 질문하고 사색하는 태도가 바로 ‘벗어나 떠남’에 대한 사유의 면모인 것이다.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를 이루기 위한 사유의 또 다른 주제는 ‘분노가 없음’과 ‘해치지 않음’이다. 이 둘은 하나의 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노의 감정은 흔히 적대감을 낳으며 폭력의 형태로 상대방을 해치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불교가 지향하는 정신이 공동의 유익함을 추구하며, 즐거움은 함께 누리고 괴로움은 덜어주려는 자비(慈悲)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는 그 성격상 ‘지혜의 갖춤을 지향하는 사유체계’ (慧學, 혜학)에 속한다는 해석방식은 이미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유의 주제가 ‘분노가 없음’과 ‘해치지 않음’에도 있음은 지혜의 칼을 다듬는 노력만큼 자비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사유의 담음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불

산문 밖의 禪

소설가 백금남

다시 유마가 필요한 시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우리는 삶의 비밀을 밝혔지만 그 ‘아픔’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픔’ 속에서 살고 있다. 한 소설이 있다. 소설의 시작은 “나도 아프다”고 했던 ‘유마’에서 비롯됐고, 유마라는 이름은 부처님 시절 속에 들어있다. 소설 <유마>다. 2016년 1월에 출간된 백금남(68) 작가의 작품이다. 소설 <유마>가 완성되기까지는 3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것일까. 영화 ‘관상’의 원작 소설 <관상>의 저자이며 오랜세월 불교적인 소설을 써온 백금남 작가의 이야기다.

박도일 수필가

32년 만에 탈고한 소설 <유마>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그 만큼의 세월이 당연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백 작가는 그의 첫 소설인 <심우도>로 1985년 ‘삼성문학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이름을 적었다. 세월의 숫자를 놓고 보니, 소설 <유마>는 <심우도>와 같은 시기에 집필을 시작한 소설이다.

소설 <유마>의 주인공 유마는 부처님 당시 거사의 신봉으로 대승불교의 서막을 열었던 인물로, 중생의 아픔에 마음을 둔 ‘보살’이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하듯 때가 되면 부처님의 말씀마저도 끊어내야 한다고, 그것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설한 선지식이었으며, 문자와 가르침에 불들려 일각(一覺) 앞에서 길을 잃은 승단의 불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깨웠던 헌신의 불제자였다. 수행의 방법이 있어서도 현실에 눈 뜨지 못하고 문자나 가르침에만 기댄 승단의 소승적 깨달음보다는 저자거리에서 울고 있으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생의 삶 자체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했던, ‘생활선(生活禪)’과 ‘현실불교’의 선지자였다.

유마를 그리고 있는 소설 <유마>는 ‘깨침’이라는 이상의 세계와 그 깨침의 주제인 대중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문제를 갈등의 구조로 하여 문학적으로 그려냈다.

“시작은 했지만 ‘유마’에 대한 자료가 적어서 이야기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세상’과 ‘불교’를 알아야 현실불교의 선지자였던 ‘유마’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마’를 제대로 알아야 했고, 생활선과 불이(不二)사상 등 유마가 이야기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유마)가 궁극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했던 대승(大乘)과 진정한 불법(佛法)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소설 <유마>가 <심우도>나 그의 다른 작품에 비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 아득한 시절의 유마를 제대로 알 길이 없었다. <유마경>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유마를 오롯이 만날 수 없었고, 그것만으로는 소설을 짓기 어려웠

다. 백 작가는 유마를 만나기 위해 여러 경전에 흠어져 있는 유마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수십, 수백 권의 경전을 읽어야 했다. 그렇게 찾아낸 유마의 이야기를 오롯이 이해하고 써내기 위해서는 좀 더 세상을 알아야 했고, 좀 더 깊은 공부도 필요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했다. 백 작가는 유마가 대중 속에서 현실과 얽혀 살며 부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아냈듯이 그런 ‘유마’를 쓰기 위해선 작가 자신이 믿고 선 삶의 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살아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치열하게 생활인으로서 살아온 세월이 없었다면 아마도 <유마>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청소년 시절 절생활로 불교 입문

고교 때 공모전 입상하며 소설가 꿈 1985년 삼성문학상 <심우도> 등단

결국 <유마>를 탈고하는 데 걸린 32년이라는 세월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당연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백금남의 소설

소설가 백금남은 등단작인 <심우도>를 시작으로 <탄트라>, <출가>, <갈의 여목>, <참 좋은 인연입니다>, <탄하>, <법정>, <목련의 기도> 등 지금까지 20편이 넘는 소설을 발표했다. 직접적으로 ‘불교’를 내세우지 않은 작품들도 있으나 그의 작품은 대부분 불교적이거나 ‘불교’다.

그는 고등학교 때 소설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하면서 소설가에 대한 꿈을 키웠다. 소설가로서의 길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먹은 소설이 바로 앞서 말한 <심우도>이다. 심우도(牛圖)는 심우도(尋牛圖)라고도 하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소를 찾아 나서는 것에 비유하며 열 단계로



소설가 백금남은...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신비한 상징과 목가적 정경으로 백경집안의 기묘한 운명을 다룬 장편소설 <심우도>와 <탄트라>가 잇따라 주목을 받으면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됐다. 2003년 <사자의 서를 쓴 티베트의 영혼 파드마삼버버>로 민음사 올해의 논픽션상 수상, 2008년 일본의 화신(畫神)으로 불리는 도슈사이 사라쿠가 김홍도라는 사실을 추적한 소설 <사라쿠 김홍도의 비밀>로 화제를 모았다. 이어 2년여 동안 신원복과 조선 후기 회화사에 대해 집필한 <소설 신원복>을 발표했다. 2013년 발표된 <관상>은 영화로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능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일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종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은 꾸준히 섭취하시면 약제의 자가 영약이 되어 감기 등 기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가 루 자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 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염 20g	7,500원

(단체 선주문으로 적합합니다.)

9번 구분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으로 받으니 대원불교조계종 수덕사 만능·전각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3개국어판

이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이 영어, 중국어를 더하여서 3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위해, 홀연히 새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소설로 불법 전하고 싶어”

그리고 있어 심우도라고 한다.

소설 <심우도>는 5대를 이어온 백금집안의 고단한 가정사를 깨달음의 상징인 심우도의 화폭 속에서 그리고 있다. 이 집안의 백정들은 소의 눈을 가리는 대신 자신의 눈을 가리고 한 순간에 소를 쓰러뜨리는 도살법을 연마한다. 살생의 업에서 번민하는 백정의 몸부림이다. 집안의 마지막 백정인 산우가 도살 중에 달아난 소를 찾아 깊은 산 속을 헤맨다. 소설은 소를 찾아 나선 산우의 산행을 “자신”을 찾아가는 고행(苦行)으로 그려내고 있다.

“인간이 잃어버린 참마음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 속의 불교가 아닌 소설 속의 불교를 통해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우리를 삶을 잠시나마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함께 찾아가기 위한 모색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심우도>는 문단과 불교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된 백 작가의 불교적인 소설은 1994년에 발표한 <칼의 어둠>에서 또 한 번 빛난다. <칼의 어둠>은 유년의 아픈 상처를 안고 입산한 소년 안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구도 소설로, 그 수행의 과정 속에 1990년대 한국불교의 뜨거운 논점으로 떠오른 ‘돈오돈수, 돈오점수’를 불러들였다. 이미 <심우도>를 통해 깨침에 대한 깊은 모색을 시도했던 백 작가는 깨침으로 가는 직접적인 방법론인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상충성과 합일을 향한 치열한 모색을 그리며 재가는 물론 학계와 승가로부터 많은 애깃거리를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로도 백 작가는 꾸준히 불교에서 찾은 소재를 소설화했다. 수많은 경전을 남긴 티베트의 파드마삼바의 생애를 그린 <사자의 서를 쓴 티베트의 영혼 파드마삼바>, 일타 스님이 들려주는 출가 이야기 <참 좋은 인연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화승이자 선승으로 추앙받는 탄허 스님의 일대기 <소설 탄허>, ‘무소유’ 한 마디로 한 시대에 깊은 울림을 던지고 2010년 열반에 든 법정 스님의 생애 <법정, 맑고 향기로운 사람>, ‘우란분재’의 기원이 된 목련존자의 이야기 <목련의 기도>, 그리고 <유마>로 이어졌다.

출가 아닌 출가

<심우도>로 시작해서 <유마>에 이르기까지 백금남의 소설 중에는 불교적인 소재와 주제로 쓰인 작품이 많다. 그의 첫 작품인 <심우도>와 최근 작 <유마>는 32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차를 두고 세상에 나왔지만 두 작품은 모두 소설가 백금남이 소설가로서 마음에 품은 첫 번째 테마였다. 곧 소설가 백금남의 테마는 ‘불교’였던 것이다. 왜 그의 첫 작품은 <심우도>였으며, 최근 작 <유마>는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책상에 머물렀던 것일까.

백 작가는 불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누구보다 어머니의 불심이 깊었다.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 서부터, 아니 태초에 기대 있을 때부터 그의 영혼에는 불가의 부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불가적 음성과 불가적 사고 속에서 어린 백금남은 자랐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그를 절로 보낸다. 정식 출가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의 ‘보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교육’이 아닌 ‘체육’으로 자식을 기르고 싶었다. 소년 백금남은 학교가 끝이면 절로 가 예불을 모시고 스님의 시봉을 들었다.



유마의 현실불교, 생활선에 감화
“유마의 불이사상 필요한 시대”
<심우도> <유마> 등 20여 편 발표

향을 울리고, 무릎을 꿇고, 말을 아끼고, 생각을 버리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소년 백금남에게 절집생활은 그 자체가 새로운 세계이자 체육이었다. 학교의 수업 종소리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과 산사의 종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백금남의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어린 백금남의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그렇게 짧지 않은 세월을 절에서 보낸 백금남의 몸과 마음에는 불가의 문자와 불가의 사색이 침전되어 있었다. 그에게 불교는 아이가 태어나 부모로부터 처음 듣는 언어와 같이 그를 형성해가는 또 하나의 모국어였다. <심우도>에서 <유마>까지 백금남의 소설을 채우고 있는 모색과 언

급들은 그 침전물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불가적 정서가 그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소설가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의 소설이 불교에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가 자신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었고, 자신도 불교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다. 삶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불교이기에 불가의 문자로 채워지고 길러진 백금남의 마음속에 그 물음이 없을 리 없었다. 산문을 떠난 후에도 백금남의 마음속에는 늘 불교가 있었고 그 물음이 있었다. 그것은 백금남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었다. 곧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심우도’를 소설가 백금남은 지나칠 수 없었다. 그리고 늘 ‘지금’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백 작가는 어느 날 유마를 만난다. 그렇게 만난 유마는 ‘답’이었다. ‘유마’는 인간 백금남에게 평생 읽어야 할 ‘책’이었던 것이다. 그의 첫 작품인 <심우도>는 백금남만의 모국어가 품은 첫 번째 물음의 대답이며, 32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유마>는 백금남이 산문 밖에서 오랜 세월 읽고 또 읽어낸 불가의 아득한 풍경 같은 것이었다.

다시 유마가 필요한 시절

“불이사상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고, <유마>라는 소설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백 작가는 소설을 출간할 때마다 자신의 소설이 부처님의 진정된 가르침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소설 <유마>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유마의 이야기가 세상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마>를 출간했다고 했다. 그는 불법에서 멀어져 가는 세상과 현실에서 멀어져 가는 불교를 걱정했다.

“종교(불교)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이상만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죠. 밥을 먹어야하는 대중에게 종교는 현실에서 시작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세계가 견고해지다보면 이상세계가 조금씩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 작가는 그 현실세계와 이상세계 사이에 우리(대중)가 있다고 했다.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미완’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며 그것이 유마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백 작가 역시 ‘완성’으로 가기 위해 글을 쓴다고 했다. 미완의 중생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2천5백 년 전, 유마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한 소설가는 다시 유마가 필요한 시절이라고 말한다. 백 작가의 말대로 유마가 필요한 시절이라면 <유마>가 세상의 모양을 바꾸어 주길 기대한다.

전법일기

나는 부처의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도 연꽃어린이집의 하루 시작은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외쳐대는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요”로 시작한다. 어제 봤는데도 어쩔 지랄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해주었어? 우리 연꽃동아들이 교실 한 편에 앉아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하면서 그곳에 음식을 하나 가득 차려 놓고 “나무불 나무불 나무불 이 음식에 갖든 은혜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부리 하화중생 명심 발원하옵니다”라고 두 손 모아 나무도 예쁘게 기도를 한다.

이제 내가 어린이집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근본 목적인지도 모르겠다. 아이들 삶 속에는 이렇듯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생활이 깃들어 있다. 우리 연꽃동아들은 어린이집에 오면 오전 간식, 점심공양시

“원장 시님~ 원장 시님은 신랑 있어요?”

“아니, 왜?”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버려요?”
“원장 스님이 버리는데?”
“음, 원장 스님 불쌍하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소꿉놀이에 열중이다. 다음날 나에게 신랑의 유무를 물었던 친구가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교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무실로 들어와 목청이 떠나가라 날 찾는다.

“원장 시님~ 원장 시님~”
“우리 초록이 오늘 기분 좋구나, 왜?”
“원장 스님 이거 써요.”
그러더니 어린이집 가방을 뒤적뒤적하더니 노란 연꽃가방에서 신용카드 하나



그림 · 박구원

간에 그리고 오후 간식시간까지 기본 하루 세 번은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음식을 먹는다.

부처님께서 모래로 부처님을 만들고 법당을 만들어 노는 아이들에게 왜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려 주셨는지 우리 연꽃동아들을 보면 너무나 이해된다.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어른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재미있고 신기하다. 하루는 우리 연꽃동아들의 소꿉놀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5살 남자 친구가 “여보 회사 다녀왔소” 하고 인사를 한다. 흔히 보는 모습 이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후 여자 친구가 하는 말에 한참을 웃었다. 예전에 하는 소꿉놀이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다녀왔소”는 남자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기요.”
그러자 남자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음, 알았어요. 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오늘은 분리수거 안되는 날이죠”라고 말하며 봉투 하나를 들고 일어서 교실 밖에 내다 놓고 돌아왔다.

이렇게 변해버린 소꿉놀이 문화에 황당해 하고 있는데 한참 놀던 녀석 중 한 명이 슬그머니 내 옆에 와서 묻는다.

“원장 시님, 원장 시님은 신랑 있어요?”

“아니, 왜?”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버려요?”
“원장 스님이 버리는데?”
“음, 원장 스님 불쌍하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소꿉놀이에 열중이다. 다음날 나에게 신랑의 유무를 물었던 친구가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교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무실로 들어와 목청이 떠나가라 날 찾는다.

“원장 시님~ 원장 시님~”
“우리 초록이 오늘 기분 좋구나, 왜?”
“원장 스님 이거 써요.”
그러더니 어린이집 가방을 뒤적뒤적하더니 노란 연꽃가방에서 신용카드 하나

“원장 시님, 혹시 우리 아이 가방에 OO 카드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세요.”
“아머니, 그 카드 저한테 있는데요. 이 카드 쓰면 기분 좋아진다는데요.”
당황해 하는 어머니께 전후 사정 얘기를 모두 드러내 박장대소를 하신다.

아이들 인성교육은 책이나 글로 따르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른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경륜 스님(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과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과불 크기 : 가로 200cm x 세로 300cm
- 무게 : 15kg
- 구성품 : 휴대용 가방(과불+설치물+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충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순금충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